

전주에 드론 시제품 제작소 생긴다

시·캠틱종합기술원, 드론분야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특화랩 선정 전주첨단벤처단지 1동에 '전주드론제작소 윙윙-스테이션' 구축 추진

드론 도시 전주에 드론 시제품 제작소가 들어선다.

전주시와 캠틱종합기술원(원장 노상흡, 이하 캠틱)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창업진흥원이 전담하는 '2022년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의 주관기관(특화랩)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디지털 기술 기반 제조기기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창작, 구상, 개조하여 제조·장입을 촉진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과 아이디어 제품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와 캠틱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최대 5년간 국비 9억 원을 지원받아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 1동(옛 본부동)에 시제품 제작을 위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전주드론제작소 윙윙-스테이션' 구축하고, 교육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시는 최근 첨단벤처단지내 문을 연 드론혁신산업지원센터의 장비들도 추가로 활용해 예비창업자 등이



드론 도시 전주에 드론 시제품 제작소가 들어선다.

아이디어를 제품화를 돕고 드론혁신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들과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창업 기술 등을 전수받아 성공적인 창업에 이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캠틱도 지난 20년 동안 창업기술교육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해온 역량과 바탕으로 드론산업 분야 특화 교육과 장비·기술 등을 활용해 현장형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주첨단벤처단지를 드론 예비창업자 발굴과 육성, 창업, 성장·발전이 집적화된 대한민국 드론산업거점인 드론산업혁신밸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지역 특색에 맞는 드론 서비스 발굴과 상용화를 목표로 한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과 우수 드론기술 상용화와 실증 지원을 위한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잇달아 때내 드론특구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혁신창업허브에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가 들어섰다.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는 드론기업과 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첨단드론장비 15종과 드론 관련 산·학·연 13개 기관의 입주공간을 갖추고 있어 지역 드론기업들을 위한 거점공간이자 대한민국 드론산업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종성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은 "전주드론산업혁신밸리 2030플랜에 맞추어 드론 산업기반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첨단벤처단지는 드론산업을 필두로 전주 첨단산업의 지도를 바꾸는 중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놀이 가치 공감 위한 인식개선 교육

전주시, 아동기관 종사자·공무원 등 대상 진행

전주시는 지난 1일 야호통합지원센터에서 전주시 아동기관 종사자와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다섯 번째 놀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지정우 EUS+건축공공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다함께 만드는 놀이풍경'을 주제로 강연했다.

시는 향후에도 맞춤형 놀이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의 놀이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러한 인식 변화를 통해 나오는 다양한 창의적인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추진할 아동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아동 놀이권에 관심 있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야호 놀이전주 누리집(www.jonju.go.kr/yaho) 및 포스터 등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선옥 전주시 야호아이놀이과장은 "놀이인식개선 교육이 학부모, 유아 및 아동기관 종사자에게 한정되지 않고, 더 나아가 다양한 연령층과 기관들에게도 진행되어 많은 전주시민들이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역사박물관, 전주 근현대사 관련 자료 유물 매도 신청 접수

전주시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전주역사박물관에 전시하거나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유물의 매도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전주 역사·문화·산업 분야 관련 자료 △조선왕실 관련 유물 △전라북도 및 전주시 자료 등과 관련된 서적·문서·사진물품 등 전주의 근현대사 관련 자료를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매도 자격은 개인소장자(중종 포함)이거나 문화재매매업자, 법인·단체 등으로, 희망자는 전주시청 누리집 또는 전주역사박물관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유물매도신청서와 매도신청유물명세서 등을 작성해 사진과 함께 이메일(jeey2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유물에 대해서는 1차 자체평가와 전문가로 구성된 유물감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유물의 가치와 가격을 결정할 후 매도자와 협상을 통해 유물 구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매매 계약은 유물에 대한 화상공개를 통한 도난문화재 여부 확인 후 체결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플랫폼노동자 권익보호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건강·심리·세무·재무 상담 진행

전주시가 대리운전, 퀵배달, 택배기사 등 플랫폼노동자의 건강한 노동을 뒷받침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4일부터 6일까지 서부신시가지 플랫폼노동자 센터에서 노동자가 일하면서 겪는 직무 스트레스, 감정노동, 세금신고 및 납부 등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플랫폼노동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은 전주근로자건강센터와 쉼(SSAC)심리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전주지사 등과 연계해 진행되며, △건강상담 △심리상담 △세무상담 △재무·노후상담을 주제로 운영된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대부분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납부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과 노후에 대한 불안감 등에 노출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및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비대면 산업상담 등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노동자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주제의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못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면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권익개선은 물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사전 간담회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심기본)는 4일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성적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2년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특수학급 담당자와 교사, 관찰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새롭게 적용된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 매뉴얼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교육 전·후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는 설문조사, 교육환경 구성 등 사업진행을 위한 협조사항,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 2월부터 전주시내 특수학교와 초·중·고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2022년 성 인권 교육에 참여할 12개 학교 92명을 선정했다.

심기본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학교, 가정,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장애학생의 성인권익이 보장되는 교육환경 구축과 성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